

■ 주요 뉴스: 미국 다우지수, 5일 연속 상승. 기업실적 개선성장 둔화 우려 완화 등이 반영

- 독일 경제장관, EU는 러시아산 석유수입 금지 관련 합의가 가능
- 중국 인민은행, 은행권에 중소기업 대상 대출 확대를 요청
- 일본은행 총재, 완화적 통화정책에서의 원만한 출구전략을 기대

■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경기둔화 우려 완화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

주가 상승[+2.0%], 달러화 약세[-0.3%], 금리 보합[+0bp]

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기업실적 개선과 양호한 소비 지속 기대 등이 원인
유로 Stoxx600지수는 영국의 재정부양 계획에 따른 소매 관련주 강세 등으로 0.8% 상승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통화긴축이 예상보다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 등이 영향
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.4%, 0.2% 상승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성장둔화 및 금리인상 전망이 엇갈리며 보합 마감
독일은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으로 5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260.6원, -6.4원) 0.5% 하락, 한국 CDS 하락

		5/26일	5/25일	전일대비			5/26일	5/25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057.8	3,978.7	1.99%	국채 금리 10y	미국	2.75%	2.75%	0bp
	유럽	437.71	434.31	0.78%		독일	1.00%	0.95%	5bp
	중국	3,123.1	3,107.5	0.50%	CDS 5y	한국	45bp	47bp	-2bp
	일본	26,605	26,678	-0.27%		중국	71bp	76bp	-5bp
	한국	2,612.5	2,617.2	-0.18%	위험 지표	EMBI+	-	405	-
환율	달러지수	101.75	102.06	-0.30%		VIX	27.50	28.37	-3.07%
	유로화	1.0725	1.0681	0.41%		WTI유	114.09	110.33	3.41%
	엔화	127.12	127.32	0.16%	원자재	구리	425.5	427.7	-0.51%
	위안화	6.7389	6.6932	-0.68%		금	1,850.6	1,853.5	-0.15%
	원화	1,267.0	1,264.6	-0.19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다우지수, 5일 연속 상승. 기업실적 개선·성장 둔화 우려 완화 등이 반영

- 5/26일 다우지수(1.6%)가 큰 폭 올랐고, S&P500 및 나스닥 지수도 강한 상승(각각 2.0%, 2.7%)을 나타내면서 3일 연속 오름세. 이에 3대 지수는 3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주간 기준 플러스로 마감할 가능성이 제기
- 금일 상승은 소매업체의 실적 호조로 높은 인플레이션 불구하고 양호한 소비에 따른 성장둔화 우려 완화에 기인. 1/4분기 성장률(수정치)이 -1.5%로 속보치 대비 악화되었으나 견고한 소비활동이 확인된 것 역시 투자심리 개선에 일조
- 아울러 5월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연준의 통화긴축 강도가 당초 시장의 예상보다 약할 수 있다는 기대도 증가. Amundi의 Anne Beaudu는 시장의 관심이 인플레이션에서 경제성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
- 이에 일부에서는 주가의 높은 변동성 국면이 끝나가고 있다는 의견 피력. LPL Financial의 Quincy Krosby는 과매도(oversold)에 따른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. 위험도가 높은 정크본드 ETF(JNK ETF) 또한 이번 주 3.9% 상승
- 하지만 Horizon Investment의 Zachary Hill은 과도한 기대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. 긴축적인 금융시장은 소비여건 악화 등을 통해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, 이러한 상황이 바뀔 때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5월 3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, 전주 대비 감소. 수요 우위 상황 지속

- 해당 건수는 21만건을 기록하여 전주(21.8) 및 예상치(21.5)를 하회. 블룸버그의 Eliza Winger는 4주 이동평균이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했는데, 이는 기업 해고가 점진적인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

■ 미국 4월 잠정주택판매, 2년 만에 최저. 모기지 금리 상승 등으로 수요 둔화

- 해당 판매는 전월비 3.9% 감소하여 3월(-1.6%) 및 예상치(-2.0%) 모두 하회. 부동산중개인협회(NAR)에 따르면,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매수인의 비용 부담이 1년 전에 비해 25% 증가. 또한 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15% 상승

■ BofA, 연준은 9월에 통화긴축 조치를 잠시 보류할 가능성

- 여름 이후 경제성장이 부진하고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가 확인된다면 통화긴축이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다고 평가. 5월 FOMC 의사록에서 위원들은 경기침체 혹은 급격한 실업률 상승을 피하기 원한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진단

■ 독일 경제장관, EU는 러시아산 석유수입 금지 관련 합의가 가능

- 하벡 장관은 혹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다른 대체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. 또한 EU의 모든 회원국들이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를 줄여야 하며, 이를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부연

■ 중국 인민은행, 은행권에 중소기업 대상 대출 확대를 요청

- 특히 국영은행들에 코로나 19 피해가 큰 지역 및 기업에 대한 대출을 최우선하여 제공하기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. 이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경기둔화 우려 및 이에 따른 은행권의 대출 위축 등을 고려한 조치로 평가

■ 일본은행 총재, 완화적 통화정책에서의 원만한 출구전략을 기대

- 구로다 총재는 최근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, 소비자물가 상승은 내년 이후부터 완화될 것으로 전망. 향후 정책의 핵심은 금리인상 시행과 대차대조표 축소 등에 맞춰질 수 있다고 첨언

■ 러시아 중앙은행, 3.0%p 금리인하. 환율 안정 및 경기부진 등이 배경

- 이번 결정으로 정책금리는 11%로 하향. 나비울리나 총재는 인플레이션 위험이 완화되고 있으나 경제가 구조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

■ OPEC+, 7월 원유 공급은 당초 계획대로 소폭 증산 유지할 전망

- 관계자들에 따르면, 6/2일 회의에서 지난 합의대로 일일 43.2만배럴 증산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. OPEC+는 원유시장의 수급 균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, 최근 유가 급등은 공급부족이 원인이 아니라는 입장 유지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5/27 현지시각 기준)

- ECB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 강연, 미국 4월 근원 PCE 물가지수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연준의 고강도 통화긴축 지속, 금융시장 안정의 시험대가 될 전망 - 블룸버그

(The Federal Reserve's Next Act Will Test Market Stability)

- 연준은 6월부터 고물가 제어를 위해 적어도 2회의 빅스텝(0.5%p 금리인상) 및 대차대조표 축소 등 전례 없는 수준의 고강도 통화긴축에 나설 전망이다. 이는 심각한 경기부진이 도래하기 전에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 여부를 시험할 것으로 예상
- 장기간 연준은 금융시장에서 유동성 공급 관련 핵심 역할을 이행했는데, 금리인상 및 대차대조표 축소 등을 지속할 경우 유동성 부족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
- 연준은 '19년 경험을 바탕으로 긴급한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상설 스탠딩 레포 제도를 신설하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. 하지만 유동성 축소로 금융시장에서 심각한 혼란이 발생한다면 연준은 결국 긴축경로 수정에 나설 소지

■ 다보스 포럼에서 제시된 세계화의 종언, 매우 과장된 견해 - Financial Times

(The death of globalisation has been greatly exaggerated)

- 다수의 경제 인사들이 세계화 후퇴와 지역별 경제 분단화를 우려. 하지만 세계무역은 코로나 팬데믹 초기 당시의 일시적인 감소를 제외하면, G20을 중심으로 증가세 지속. 금융 측면에서도 '16년 이후 은행 간 거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상황
- 특히 탈세계화는 생산 복원력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확인. 최근 미국의 분유 부족 사태 등은 공급망 혼란으로 인한 충격을 반영. 지역별 통합이 아닌 전세계적 통합이 선진국보다 개도국에 더 효율적이면서 생산적인 경제활동으로 연결

■ 중국 인민은행, 경기부양과 자본유출 방지 사이에서 균형 유지가 중요 - Financial Times

(China's central bank faces a delicate balancing act)

■ 러시아의 통제 강화에 따른 루블화 강세, 경제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 - WSJ

(Russia's Economy Is Tanking but the Ruble Soared. Here's Why.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